
2022년 제4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1. 21. ~ 1. 2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1. 21.	시청률	0.081

【총 평】

‘12월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수출 선도국 도약 방안’편에서는 지난해 수출 약진 배경과 의미, 특징 등을 분석한 뒤 올해 수출 성장세 지속을 위한 과제를 깊이있게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와 부동산 가격 폭등, 양극화 심화 등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최단기간 무역 1조를 달성해 한국 무역순위가 8위로 도약했다는 쾌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지난해 수출 약진 배경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올해 전망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를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과 무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경제 실적이 다른 뉴스에 묻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중있게 잘 소개했다. ‘알뜰신잡’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소개해 계절에 맞는 유익한 건강정보로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경제&이슈는 지난 12월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수출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12월 수출 성과, 수출 약진의 배경과 의미, 지난해 수출 동향과 특징, 수출 성장 지속을 위한 대응 등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한국이 무역순위 8위로 도약해 무역강국 입지를 강화했다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자긍심과 추동력을 불어넣어주는 순기능을 부여했다. 알뜰신잡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으로서 질환의 종류, 발생 시 대응법, 예방법 등을 전했다.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2월 기준 수출은 60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1위 수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요 품목 중 반도체, 석유제품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석유제품은 10개월 연속 대폭 증가했다. 무선통신 기기,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은 수출 감소를 보였지만 이는 기저효과로 보이며, 수출 9대 지역으로의 수출은 전부 증가했다. 한국의 경제 체질이 코로나19 이후 반도체의 경우 비대면, 원격산업과 관련하여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또한 일반기계, 바이오 헬스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K-컬처를 타고 농수산물, 화장품 등 유망 신산업의 수출에서도 약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수출 호조의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수요폭발의 혜택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점차 종식되면 수출 폭증 현상이 둔화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보면 반도체, 선박 등 특정 품목에 치중되는 모습이다. 더불어 탄소중립 추세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이다. 겨울철 주의해야 할 주요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등이 있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내복을 입고 긴 양말을 착용하며 신발은 덧신이나 기모 있는 부츠, 방한화를 착용한다. 이외 모자, 목도리, 마스크로 머리, 목을 감싸준다.

프로그램	특별생방송 문재인 대통령 중동 3개국 방문 외교 성과		
방송일자	2022. 1. 21.	시청률	0.036

【총 평】

특별생방송 ‘문재인 대통령 중동 3개국 방문 외교 성과’편에서는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3개국과 협력을 다진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특히 석유 수출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소개했다. 중동 3개국은 60% 이상의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로 해외 건설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 협력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나라라는 점을 짚어주었다. 중동국가 중에서 가장 협력이 많은 나라는 UAE로 국방과 방산 협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 수소협력분야, 스마트시티 협력, 보건디지털협력분야 등을 강조했다. 또 이집트는 16년 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했으며, 이집트는 우리나라를 국가발전 롤 모델로 삼고 있다. 이 밖에 세 나라와의 관계는 기후 협력, 수소 경제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중동 3개국과의 외교 관계를 정리하면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지 42년이 됐으며 중동 지역 최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관계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교 수립 60주년을 맞았고 중동 지역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사우디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국가이다. 이집트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교 수립 27주년을 맞았다. 2005년 아프리카 중동지역 최초로 ‘한국어학과’를 설립했고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미래 산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이번 중동 3국의 순방의 핵심 단어는 ‘수소와 수출 그리고 수주’이다. 아랍에미리트와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소 협력을 하고 우주와 과학기술 등 미래 첨단 분야에 협력하며 방산 분야 공동 연구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고 과학 기술 및 인공 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공유하며, 수소와 지식 재산, 교육 등 미래 분야의 연구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이집트 정상 공동언론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를 통해 한-이집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지속가능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중동 3개국 방문이후 과제로 3가지 장벽인 종교적 장벽, 언어 장벽, 공간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신뢰를 쌓기 위해 지역연구와 전문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또 중동국가들은 탐다운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실무진보다는 고위급에서 진행되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1. 21.	시청률	0.000

【총 평】

코로나19 발생 2년을 맞이해 '2년 째 멈춰진 일상,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비롯해 시작으로 어린이 의류 무료 교환 상설 행사, 2022년 호주 테니스 오픈 경기에 '테니스 기대주 신우빈, 호주 오픈 주니어 4강 도전' 등을 방송했다. 특히 다양한 주제와 함께 방학을 맞은 자녀와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의 로봇 해설사, 강릉 초대형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은 교육적 일면도 더해졌다. 또 어린이 의류 나누는 '키즈 두 번째 옷장' 인기는 자원 선순환,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은 친환경 장례문화로 눈길을 끌었다.

【구성 및 내용】

- 2년째 멈춰진 일상,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한 감염률이 증가하자 빠르게 검사를 받도록 했다. 보건소 의료진은 비대면 화상진료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고위험군에게는 3차 접종도 독려하고 있다.
- 어린이 의류 나누는 '키즈 두 번째 옷장' 인기
더 이상 입지 않는 아이 옷을 이웃과 나누는 아이 헌옷 순환 플랫폼인 '키즈 두 번째 옷장'을 소개했다. 버리기 아까웠던 제품을 기부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나눔의 장이다.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자원 선순환 시스템이다.
- 경량 손수'로 어르신들의 삶의 무게 줄여요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설립한 소셜 벤처 '끌림'은 철로 만들어진 수레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 무상 지원하고 있다. 경량화 리어카에 광고를 붙여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어르신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되던 스티로폼 식기, 플라스틱 식기,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회용품을 모두 다회용품으로 교체하고 소독 살균 후 재사용한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이다.
- '로봇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로봇이 전시해설을 맡아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해설을 피하고자 로봇해설사를 도입해 안전한 관람을 준비했다는 박물관 측의 설명이다.
- 대자연이 눈앞에, 강릉 초대형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국내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강릉에 문을 열었다. 빛과 소리로 자연을 만들어낸 실감형 미디어 아트를 전시하고 있다. 총 12개의 테마로, 각 공간마다 냄새와 소리까지 더해져 실제와 같은 자연을 선사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별생방송 문재인 대통령 중동 3개국 순방 경제 성과		
방송일자	2022. 1. 21.	시청률	0.019

【총 평】

특별생방송 ‘문재인 대통령 중동 3개국 순방 경제 성과’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기간에 맞춰 경제 성과를 분석해보고 향후 성공을 거두기 위한 과제를 깊이 있게 짚어보았다. 중동 순방의 의미, 교류의 중요성, 수소 수출 수주 등 경제 키워드 배경, 국가별 협상 결과, 성공적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본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임기말 왜 해외순방인가”하는 일부 비판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중동 순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설득력을 높였다. 이 밖에 중동분야 전문가와 국제통상분야 전문가의 치밀한 진단과 함께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해 정책적 해결책을 제공했으며, 신뢰 구축으로 공존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적 조언이 적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습과 기초연설을 통해 중동 3개국 순방을 요약 정리한 구성물이 시청자 이해와 몰입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문재인 대통령 중동 3개국 순방 경제 평가’는 6박 8일의 일정으로 중동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소개했다. 순방의 의미와 중동 3개국의 교류 중요성, 코로나 19 위기속에서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비판, UAE, 사우디, 이집트 각국의 소개와 교류 등에 대해 짚어주었다. 이번 순방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상외교를 통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방산수출의 전초기지를 마련했다. 두 번째로는 둘째, 탈석유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스마트화, 친환경 에너지화를 추진하는 UAE, 사우디, 이집트에 우리 기업과 인력 진출의 기회를 확보했다. 세 번째로는 중동 원유 수입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중동, 북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중동 3개국 순방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적,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의 국익, 미래 먹거리 확보 관점에서 필요한 순방이었다.

중동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국가인 UAE에 대한 이번 순방으로 그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천궁-II의 수출 등을 통해 양국간 방산산업 협력에 기여했다. 더불어 K-2 흑표전차, FA-50 전투기 분야에서도 수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한국-사우디 수교 60주년으로 K-드라마와 케이팝 인기가 급상승 중이며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비전 2030에 한국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의 맹주국으로 수에즈 운하가 있는 국제 물류 중심지이다. 한국은 2021년 이집트를 ODA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했고, 한국-이집트 FTA 타당성 공동연구 개시를 논의하고 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1. 22.	시청률	0.008

【총 평】

‘가난해도 행복한 남남북녀의 겨울’편에서는 탈북출신 40대 주부와 가평출신 50대 남편 등 남남북녀 부부의 이야기를 담았다. 경기도 가평 화악산 덕장에서 말린 황태를 가져다 서울 코다리 전문식당에서 요리해 판매하며, 어른들에게 음식 봉사를 하는 이야기가 감동을 전달했다. 특히, 탈북의 아픔을 딛고 부부와 3남매가 화목한 가정을 이뤄 다복한 생활을 이어가는 억척주부의 일상이 기획의도를 살렸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통해 풍족하지 않지만 내 것을 나누는 봉사를 하는 부부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하다며, 자신이 가진 것에서 베푸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삶의 철학이 시청자들에게 힐링 메시지로 감동을 선사했다. 이밖에 해발 700미터 화악산 명태덕장, 건조시킨 황태 모습, 떡국 도시락 만들기와 배송, 남남북녀 부부의 진솔한 대화 등 다양한 영상 구성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경기도 남자와 함경북도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진 이들 부부의 황태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를 전했다. 가평 화악산 중턱에서는 겨울이면 생선 말리는 냄새가 가득하다. 남남북녀 부부는 매년 서울에서 황태덕장까지 함께 출근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의 화악산은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많이 불어 덕장 운영에 적당한 곳이다. 처음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고향에서 자주 먹었던 명태가 먹고 싶어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조금씩 말려서 먹다가 점차 규모를 늘려왔다.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 사업을 시작했다. 남편은 묵묵히 아내의 손과 발이 되었고 덕장을 시작한지 어느덧 10년이 지나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겨울에는 황태 덕장일과 상품 포장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 양천구 신정동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들 가족은 시어머니, 자식 3명을 포함해 총 6식구다. 이들 부부는 덕장일 때문에 그간 문을 닫았던 식당 문을 열었다. 10년 전 서울에 코다리 전문점을 여러 함경도식 명태 요리로 방송되기도 했다. 군 제대후 식당일을 배우기 위해 아들도 합류했다. 어느새 23살 청년이 된 아들은 식당에서 택배배송 등 가게 일을 차근차근 배우고 있다. 한국에 온 뒤 한국의 어버이날을 보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서 고향이 북한인 어르신 30분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식사대접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14년째다. 이번에는 떡국 200인분을 준비하기 위해 사골부터 조랭이떡 등 장을 보러 나왔다. 음식을 준비하는 날에는 손을 거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았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딸부터 고명을 준비하는 탈북인과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소망두레봉사단들이다. 봉사 당일 둘째 딸은 식당에 나와 손을 거든다. 준비된 떡국은 인근 종합복지관으로 옮겨 다시 포장작업을 거쳐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한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1. 23.	시청률	0.083

【총 평】

‘친북’에서는 새해부터 잇따라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제 그리고 북한의 도발 의도를 분석해 보았다. 특히 또 음속과 극초음속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과 함께 전 세계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 3개 국가만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성공했는지, 발사 성공의 진위, 그리고 북한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북한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슈 텔링’은 2년간 국경 봉쇄를 선택한 북한의 장마당 소식을 전했다. 북한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대북 제재로 인해 석탄이 2018년 대비 90% 가격 하락했다는 점 등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북한 실정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이 밖에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장마당은 거리두기를 비롯해 사람들의 체온 체크와 소독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방역 현황을 전했다.

【구성 및 내용】

북한이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 자료를 낸 이후 1월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발사했으며 지금까지 약 6차례 미사일 발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보이며,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의도이다. 북한 외무성은 국가방위력 강화권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우리는 정정당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북한의 행보에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북 제제가 길어질수록 미사일을 고도화하겠다는 선언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더불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내적으로 과시를 하고자 하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이다. 미국은 기술만 가지고 있을 뿐 실물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에서조차 어려운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우리 합참의 발표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장마당 물가는 품목별로 요동은 있었지만 북한 당국은 장마당 시세를 항상 통제하고 있어 상한선이 지켜지고 있다. 난방연료 가격은 작년에 비해 39% 하락, 2018년 대비 90% 하락했으며, 이는 북한이 제제를 받기 전의 가격과 같은데, 제제를 받기 전에는 수출을 할 수 있었던 석탄연료가 내수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태양광이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평양시 근처에서는 활용하고 있어서 굴뚝이 사라졌다. 장마당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담요를 사용한다. 물론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지역의 장마당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2. 1. 23.	시청률	0.000

【총 평】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게임체인저 될까?”편은 먹는 치료제 팩스로비드가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처럼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었다. 전문의와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정 거점약국 약사 인터뷰, 해외 사례,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적용 방안 등에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특히 대전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정 거점약국 약사를 통해 먹는 치료제 1호 적용 사례와 병용금기약물 주의사항, DUR(의약품안전서비스)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점 등 치료제 복용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과정이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또 내과전문의 통해 정맥주사 치료 방식의 번거로움과 재택치료시에 팩스로비드의 용이함을 알려주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격리치료 경험자의 경험담을 소개해 재택치료에 치료약의 필요성에 접근했다. 이 밖에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적용 방안과 백신 접종,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해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지난 1월 13일 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팩스로비드 2만 1,000여 명분이 도착했다. 화이자사와 구매 계약을 한 76만 2000여 명분 중 초도물량이 도착했는데, 1월 14일부터 15일에 전국 생활치료센터 89개소와 약국 280개소에 팩스로비드를 배송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자 먹는 치료제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방이 주요 목적인 백신과는 달리 바이러스에 감염된 몸의 증상을 완화하고 억제하는 치료제의 도입은 환영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팩스로비드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복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통해 위중증 환자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팩스로비드로는 입원 및 사망 방지 효과가 있고 증상발현 3일 이내 복용하면 89%,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복용하면 88%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서 팩스로비드를 최초로 처방한 9명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투약 전 대비 다소간 증상이 호전된 것이 다수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서 입원 환자가 줄어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작용으로는 경미한 미각 이상과 설사, 혈압상승과 근육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약 후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1일 2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면 치료도 병행하고, 중대한 부작용은 절차에 따른 피해 보상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먹는 치료약의 도입은 재택 치료를 늘려 의료 붕괴를 막고 환자들의 심신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지나친 낙관은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팩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은 모두 28가지로 이 또한 후속 연구가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신 3차 접종을 했을 때 감염률을 75% 줄일 수 있고 또 중증화 위험은 88% 낮춰주기 때문에 3차 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KTV 특집 문재인대통령 중동 3개국 순방 성과와 의미		
방송일자	2022. 1. 24.	시청률	0.015

【총 평】

‘문재인 대통령 중동 3개국 UAE, 사우디, 이집트 순방 성과와 의미’편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6박 7일간의 대통령의 순방 성과와 의미를 일정별로 정리해 외교 성과를 자세히 전달했다. 특히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 방산수출의 전초기지를 마련했으며, UAE와는 포괄적 경제 연합, 사우디 비전2030 참여, 이집트와 FTA 체결을 재고하기로 했다. 문대통령은 미래먹거리 탐사와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외교 다변화를 추구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밖에 문대통령의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 행보를 자세히 알게 돼 자긍심이 고취되었다.

【구성 및 내용】

첫 번째 순방국은 아랍에미리트로 세계 최고층 부르즈 칼라파가 있고 세계 최강의 아크 부대가 주둔하고 곳이다. 이곳에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양국 간 수소협력을 더욱 증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총리와 천궁2 수출을 협약했다. 이 밖에 ‘아부다비 지속 가능성 주간’에 참석해 ‘양국은 수소 대중교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 도시도 함께 개발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두 번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무슬림 순례자의 성지이며, 메카의 나라이자 중동 내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이다.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야마마 궁에서 단독 회담을 갖고 방산과 원전, 수소 에너지 그리고 의료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과 사우디는 최적의 원전 파트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1월 19일 나예프 알 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GCC와 한국의 협력은 이제 보건, 의료, 과학, 기술, 국방, 안보, ICT와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사우디 등 GCC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재개했고 석유를 넘어 많은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국가는 16년 만에 공식 방문한 이집트로 문대통령은 압델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고, ‘K9 자주포 계약이 양국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방산협력의 결과로 한국과 이집트간 상생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과 전기 마이크로버스 및 모빌리티 공동 개발, 해수 담수화 개발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것으로 중동 순방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1일 이집트를 떠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순방을 마쳤습니다. 외교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상승된 국격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 같이 느껴지실 것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글을 남겼다.

프로그램	생방송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2. 1. 27.	시청률	0.075

【총 평】

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를 달성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선진국 사이에서 가장 빠르고 큰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출은 물론이고 소비도 다소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다.

‘확진자 1만 명 돌파’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PICK&PICK’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과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 강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과 추경안 증액 논의’,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을 전달했다. 최일구 앵커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검사과정을 시청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주었고, 댓글에 친절하게 응답했다.

【구성 및 내용】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틀 연속 만 명이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휴가 끝나면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오미크론이 9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월 2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실외 마스크 해제, 재택근무 해제 등 방역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미크론을 독감 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1월 27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바뀌었는데 예방접종완료자의 정의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로 변경했다. 또 선별검사소에 가면 60세 이상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하는 신속검사키트를 쓰게 된다. 이 밖에 증상이 있다면 호흡기전담병원에 가서 5천원의 진료비를 내고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호흡기전담병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5천원은 진단키트 비용이 아니라 대면진료비라는 점을 설명해 주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월 3일부터 달라지는 재택치료체계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PICK&PICK’에서는 러시아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다. 전쟁의 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자 자신의 나라는 자신의 손으로 지킨다는 일념으로 무기를 준비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모습을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주민들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작년 6월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은 1,500여 건으로 국민 누구나 양형기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치사 범죄는 최대 22년 6개월로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아동을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는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양형기준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